

# 베트남 인프라협력센터

##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9월 3~4주)

### □ 정책 및 시장 동향

#### ① 베트남 9월 경제 동향

- 베트남 중앙은행(SBV), P2P(peer-to-peer) 대출 시범사업 시행
  - P2P 대출은 금융 사용자가 은행 등 전통적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대출을 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P2P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업체 1곳당 최대 VND 1억(USD 3,791), 모든 업체를 통틀어 최대 VND 4억까지 대출 가능
  - 시범사업은 '25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었으며, 2년간 진행 예정
- 베트남 소득세 개편 요구 확산
  - 베트남 정부가 개인소득세법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딜로이트 베트남 법인은 최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싱가포르는 24%, 말레이시아와 미얀마는 30%인데 반해 베트남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인 35%는 동남아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정부 당국에 건의
  - KPMG 또한 베트남의 35% 세율 구간은 1인당 GDP의 10배 소득에 해당하나, 태국은 20배, 인도네시아는 62배로, 이는 다른 국가들이 부유층에게 최고 세율을 적용 중인 반면, 베트남에서는 중상위층마저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것을 뜻한다며 국제 관행에 부합하고 숙련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현행 최고 세율인 35%를 30%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 당국에 건의
  - 앞서 재정부가 이달 초 정부사무국에 제출한 소득세 구간 개편안에 따르면, 최고 세율은 유지한 채 과표 구간이 7단계에서 5단계로 최고 구간 기준액이 VND 8,000만(USD 3,032)에서 VND 1억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 ② 베트남 정부 동향 및 정책

- 베트남 핵심 지도부 범위 확대 (4→5인 체제)
  - 베트남 정치국이 공포한 정치 체제 직책 목록과 직책군, 지도부 직책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당과 국가 핵심 지도부 5개 직책은 서기장,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 상임서기 등으로 명시
  - 2022년 규정과 비교하면 고위 지도부에 속했던 상임서기가 핵심 지도부로 올라선 것으로, 기존 4인이 분점하던 권력을 5인이 나눠 가진 것으로 분석
  - 또한 당과 국가, 베트남조국전선의 고위 지도부는 기존 직책 외 중앙감사위원장, 당중앙위원장, 당중앙사무국장, 호치민국가정치위원장 등 4개 직책이 보완되었으며, 기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던 정치국 지도부가 2단계로 개편
  - 정치국 지도부 1급으로는 당중앙위원, 중앙감찰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당중앙사무국 부국장(당중앙위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국가감사원장, 장관 및 장관급 기관장, 국가주석실 주임,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부위원장, 베트남조국전선중앙위원회 부위원장(중앙정치사회조직 수장), 공산당 기관지 인민신문 편집장, 당서기 및 당위원장, 중앙위원회 직속 4개 당위원회 부서기, 호치민·하노이 당위원회 부서기(당중앙위원), 하노이·호치민 인민위원장 및 인민의장 등
  - 정치국 2급 지도부는 중앙감찰위원장(非당중앙위원), 베트남과학기술원 및 베트남사회과학원장, 베트남통신사·베트남의소리·베트남텔레비전 사장 등
- 베트남, 프랑스와 원전 협력 논의
  - 팜 민 하 차관이 이끄는 베트남 건설부 대표단은 프랑스를 방문해 원자력·방사선안전청(ASNR)과 원전 개발에 대한 회의를 가졌으며, 이날 회의에는 ASNR 청장 및 부청장, 국제협력관, 주프랑스 베트남 대사와 베트남 건설 및 교육, 연구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
  - 프랑스 측은 ASNR의 구조와 담당 업무 및 책임, 원전 건설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과 기술 지침을 소개한 뒤, 베트남의 원자력

활용에 대한 개요를 발표했으며, 이에 하 차관은 프랑스의 원전 건설과 운영, 인허가 절차에 관심을 표명

- 프랑스 측은 베트남 원전 건설에 있어 기술 지침과 안전 기준을 공유하기로 약속했으며, 방사선방호·원자력안전연구소(IRSN)는 베트남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앞서 팜 민 쩌 베트남 총리는 올해 12월까지 닌투언 원전 2호기 건설을 위한 국제 투자협력 협정 체결을 지시한 바 있음

### 3 베트남 기타 동향

- 하띤성 봉양2화력발전소(VAPCO) 화력발전소 1호기 준공
  - '21년 착공된 VAPCO는 봉양 경제특구 내 설계 용량 1200MW의 2개 발전기로 구성된 고효율의 초초임계압(Ultra Super Critical, USC) 발전소로, 연료로는 수입 석탄을 사용
  - 현재 2호기는 시험 단계에 있으며 곧 완공돼 3분기 중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며, 발전기 2기가 모두 가동되면 연간 약 78억kWh의 전력을 국가 전력망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
  - 투자 자본은 USD 22억으로 일본 미쓰비시상사의 지분이 60%, 나머지 40%는 한국전력공사가 보유
- 현대로템,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협력의사 타진
  -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는 베트남 복합대기업 타코그룹의 쩌 바 즈영 회장 및 호 득 픽 부총리와 회담을 갖고 철도 개발에 대한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
  - 이용배 대표는 현대로템은 고속철도 생산 기술 전수와 인력교육, 국산화, 운행 중 유지보수 및 수리 솔루션 패키지를 포함한 경제적 운영으로 베트남 고속철도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투자 의사를 전달
  - 타코그룹 회장 역시 도시철도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과 함께 현대로템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언급
  - 부총리는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베트남 내 한국 기업들의 투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항상 지원할 것을 약속

- 인천공항공사, 베트남 제2수도공항(자빈 신공항) 운영사업 참여 타진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회의실에서 베트남 정부 및 신공항사업 관계자 등과 자빈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협력회의를 가졌으며, 회의에는 자빈신공항 개발권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민간은행 테콤은행 회장과 공안부·건설부·재무부·법무부 차관, 박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공항개발 관련부처 주요인사들이 참석
  - 회의에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건설·운영 노하우, 공항서비스 역량, 공항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개발, 해외공항사업 수주 및 수행역량 등을 접목해 자빈 신공항을 베트남 북부의 새로운 항공·경제 허브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중인 룡탄신공항 운영컨설팅 사업 현황을 소개
  - 베트남정부는 '27년말 1단계사업의 성공적인 개항을 위해 자빈 신공항 컨설팅 및 운영사업의 국제입찰을 준비중이며,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참여 및 수주 추진
- 베트남 최대 건설사 코테콘, 룡탄신공항 화물터미널 건설사업 수주
  - 코테콘(Coteccons)-하노이건설공사-ATAD철강구조공사 컨소시엄은 룡탄국제공항의 USD 1.3억 규모 화물터미널 건설사업 수주
  - 제1화물터미널은 연면적 8.4ha에 연간 55만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 룡탄신공항, 항공물류허브 조성 추진
  - 베트남공항공사(ACV)는 최근 룡탄국제공항에 통합 항공 물류센터와 비관세 구역을 설립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재정부와 건설부에 제출
  - 제안서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항공 물류 지역으로 계획된 공항 서남쪽 부지에 136ha 규모로 조성될 예정
  - ACV에 따르면 해당 물류센터는 1단계 사업에서 베트남 세무 및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다 정부 승인 후 국제 자유무역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매년 항공화물 수출입액을 15~20% 증가시키고, 15,000개에 달하는 신규 일자리 창출로 남부 지역 GRDP의 약 0.7%, 수출입액의 1~2%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 일반 프로젝트 동향

### ① (베트남) 다낭-호이안 연결 광역도시철도 건설 추진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다낭시 인민위원회
- (사 업 비) VND 7.5~15조 (노선방식 및 차량종류 미정)
- (사업내용) 총 연장 30km
- (추진계획) '30. 개통 목표

- (주요사항) 베트남 인프라 전문 개발업체 데오까그룹 및 키타그룹, 퓨타그룹, 차이나디자인그룹, CRRC충칭, 아룽, A2Z, 김룡모터스 등 국내외 대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PPP 방식 개발 계획을 당국에 제안
  - 현재 도시철도가 없는 다낭은 2030년까지 총연장 24km 2개 도시철도 건설 계획이며, 해당 노선들이 완공되면, 다낭과 호이안간 이동 시간은 20분으로, 쭈라이산업단지까지 이동 시간을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

### ② (베트남) 북남고속도로 18개 구간 확장 추진

####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베트남 건설부
- (사 업 비) VND 152조 (USD 57.6억)
- (사업내용) 총 연장 1,144km(18개 구간) 최대 왕복 6차선으로 확장
- (추진계획) '26.2Q. 착공 / '30. 완공 목표

- (주요사항) 투자 방식과 관련해 건설부는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15개 노선에 대해 PPP-BOT 방식 적용을 제안
  - 현재 데오까그룹, 선하이그룹, 프영탄교통건설, VIDIFI, 베트남 도로공사(VEC), 랑동 등 다수 국내 기업이 북남고속도로 확장사업에 투자 의사를 타진